

道 SOC 예산 780억원 깎였다

추경 11조5,639억 국회 통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기침 피해 대책 등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가운데 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278억원)에서 2,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삭감액 중 지역경제 관련 SOC 사업예산이 무려 2,5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이번 추경안에는 원주-강릉 철

원주~강릉 철도 280억, 포항~삼척 철도 500억 삭감 4개 지방하천 정비 41억 반영... 평화의 댐 150억 확보

도 3,200억원, 포항-삼척 철도 1,000억원 등의 도 관련 SCC 사업예산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0억원과 500억원이 각각 깎였다. 이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삭감된 SOC 예산 2,500억원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9,200억원에 2,920억원이 더해져 총 1조2,120억원으로 늘었다. 포항-삼척 철도도 올해 관련 예산이 5,040억원대로 증가했다.

인제 한계천(15억원), 홍천 양덕원천(10억원), 강릉 경포천(10억원), 양구 서천(6억원) 등 도내 4개 지방하천 정비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의 특별한 관심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도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요청한 원주드라마페스티벌, 강원일보가 후원하는 양양공항 비행기팔기대회 지원 예산은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과 국내관광활성화 명목

으로 총 5억원이 반영됐다.

또 야당 측에서 4대강 사업의 연장선이라며 삭감을 주장해온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 예산은 정부 추경안대로 150억원이 포함됐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금은 당초안보다 1,500억원이 증액돼 총 4,112억원 규모다. 반면 SOC예산 등 4,750억원이 삭감돼 정부 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예산이 현장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kwnews.co.kr

① 춘천~속초 고속화궤 ② 여주~원주 복선전철 ③ 오색케이블카

“3대 현안 연내 해결 돕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도국회의원협의회 간담회서 약속 사업 추진 여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서 구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 설악산 오색사도 사업 등 강원도 3대 현안의 연내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국회의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며 “사업 추

진 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3대 현안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최 부총리의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여주~원주 철도에 대해 “월곡~판교 구간과 연계돼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도출이 될 것”이라며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춘천~속초 철도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 경제성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국회의원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다음 달 초 최종 사업 승인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도에서 포괄보조사업 예산으로 신청할 경우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21일 ‘도 3대 현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선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3대 현안은 도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도를 방문해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최 부총리를 비롯해 중앙정치권, 도 정치권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kwnews.co.kr



◇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 : 김기선 의원)는 24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도 3대 현안의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5개 특구 14개 지구

올림픽 특구 확정

평창·강릉·정선 개최지 정동진 등 3곳 추가 지역 명품화사업 탄력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강릉·정선을 명품화하기 위한 강원도의 올림픽 특구사업의 지구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를 비롯한 기존의 11개 지구에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등 신규 지구 3곳이 추가로 승인, 5개 특구 14개 지구가 조성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지난 23일 열린 4차회의에서 전통 역사문화지구(오죽헌 일원)와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조성안을 의결, 자연 명상·문화체험지구(오대산 일원)를 포함한 3개 신규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특구에 포함된 사업들은 올림픽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인 국비확보 속에 단계별로 추진된다. 특히 정동진 관광휴양지구는 최문순 지사의 강릉지역 공약으로 도가 역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문화관광형 '차이나 드림시티'와도 직결, 탄력을 받게 됐다.

중도위는 심의 과정에서 호텔과 빌라형 콘도 분양 사업 등을 진행할 이 지구 토지이용계획의 주택건설용지를 관광시설용지로 바꾸도록 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으로의 지정도 주문했다.

또 경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충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확정

특구 이름	지구 이름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체험지구
	자연명상문화체험지구(신규)
강릉문화올림픽종합특구	문화체육복합지구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전통역사문화지구(신규)
봉평레저문화장작지구	스포테인먼트지구
	문화장작지구
강릉로하스휴양특구	금진온천휴양지구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신규)
정선생태체험특구	정선생태체험지구

분한 재해방지와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 도면을 보고하도록 했다.

오대산 자연명상·문화체험지구에 대해서는 식생이 우수한 지역을 제외해 축소하고 녹색주차장 등 친환경 시설의 조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소금강온천 휴양·체험관광지구(강릉)와 철도지상부 올림픽관광사이트지구(〃), 대관령 관광거점지구(평창)는 부결됐다. 다만 이들 지구 관련 사업들도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도는 늦어도 8, 9월까지 확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사업기간 단축에 힘을 방침이다.

최종 계획은 대회지원실무위원회와 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여진 beatle@kado.net

최경환 “강원 3대현안 예산 확보 협력”

〈경제 부총리〉

춘천~속초철·여주~원주철·오색삭도
 도국회의원 건의에 “절차 연내 마무리”



24일 국회 본관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강원도 3대 현안사업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춘천~속초철도를 포함한 도내 3대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가 모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도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도국회의원들은 최 부총리에게 국회의원 9명 전원이 서명한 ‘강원도 3대 현안사업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도국회의원들은 건의서에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3대 현안사

업인 춘천~속초 철도 건설, 여주~원주 철도 건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박근혜 정부의 강원지역 핵심 대선 공약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3년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돼 왔으나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확보돼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의서를 받은 자리에서 3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거론한 뒤 “사업추진 여

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연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주~원주 철도 건설 사업은 월곶~판교 구간과 직결돼 있는데 두 사업을 동시에

하는 쪽으로 (진행중이다).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춘천~속초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조금 모자

르지만 어떻게해서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며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는 내달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사업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강원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신청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는 김기선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을 비롯해 한기호·권성동·이강후·이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방문규 제2차관이 배석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원주~강릉철 2920억 증액

정부안보다 280억 삭감
 하천정비예산 40억 증액
 국회 올 추경 규모 확정

도내 4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액 40억여원이 국회에서 증액되는 등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11조564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278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재석의원 207명 중 149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 35명이 기권했다.

추경안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의견이 맞서왔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줄었다.

도 관련 SOC 사업 가운데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

추경안(3200억원)보다 280억원이 삭감돼 2920억원이 늘었고, 포항~삼척 철도건설은 정부안(1000억원)보다 500억원이 삭감됐다.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삭감없이 정부 편성 추경안 150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도내 4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인제 한계천 △홍천 양덕원천 △강릉 경포천 △양구 서천이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